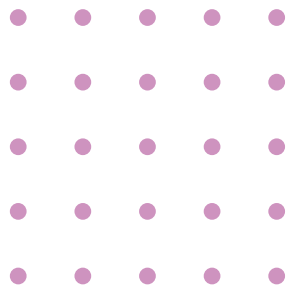


2020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결과자료집



# 목차

## Contents

---

### 04 NEXT 사업소개

---

### 05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과정

- 06 리뷰 | 부산에서의 긴 산책 - 마스크 끼고 등구이성(同口異聲)  
부산비엔날레 | 조혜수
- 10 리뷰 | 변화 속에서 세계를 잇다!  
전주세계소리축제 | 김소리
- 14 리뷰 |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보낸 4개월  
전주세계소리축제 | 양지혜
- 17 리뷰 |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  
자라섬재즈페스티벌 | 박준서
- 19 리뷰 | 17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뒷이야기(後記)  
자라섬재즈페스티벌 | 양혜란
- 21 리뷰 | 부천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나다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 이세은
- 23 리뷰 |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간, 나를 '살린(animate)'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 이승현
- 26 리뷰 | 위기의 시대에 문학을 이야기한다는 것  
서울국제작가축제 | 김누리
- 28 리뷰 | 국제영화제에서 언어와 소통의 본질을 느끼다  
강릉국제영화제 | 최수민

---

**31 기파견 국제문화교류 후속 프로젝트**

- 32 리뷰 | Remember, Zandari is real.  
이수정
- 34 리뷰 | 프로젝트, 홍도 Project, Hong Do  
정은영
- 37 리뷰 | 20세기 지하철 헤리티지 프로젝트  
이소영

---

**39 국제문화교류 연구활동 모임**

- 40 연구활동 리포트 | Curator24h
- 42 연구활동 리포트 | KOPOS(Korea and Post Soviet countries)
- 44 연구활동 리포트 | 건강한 문화 네트워킹을 위한 모임
- 46 연구활동 리포트 | 경계핑퐁
- 48 연구활동 리포트 | 꾸미
- 50 연구활동 리포트 | 예술가의 지구

---

**53 NEXT 콘퍼런스·온라인 아카데미·디렉토리북**

- 54 2020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콘퍼런스
- 55 NEXT 국제문화교류 온라인 아카데미
- 56 NEXT 문화예술 디렉토리북 NEXT Arts and Culture Directory

## NEXT 소개



Next  
Expert  
Training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Next Expert Training, NEXT)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기획 인력의 국제문화교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력단계별 해외 파견, 전문인력 집중양성과정,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및 후속 프로젝트 지원 등 신진인력에서 전문인력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파견 NEXT Placement

국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종사자의 경력단계별 해외파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문화행사 인턴십, 재외한국문화원 공동 프로젝트 기획, 해외 문화 전문기관 펠로십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견 지원을 통해 현장 종사자의 국제문화교류 역량을 강화합니다.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과정 NEXT Intensive Training Program

국제적인 수준의 국내 대표 축제들과 협력하여 신진인력의 국제문화교류 역량을 강화합니다. 집중양성과정 참가자들은 국제문화교류 이론교육부터 현장실습, 프로젝트 개발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성장합니다.

### NEXT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NEXT Academy

NEXT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는 국내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종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현장 종사자들에게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언택트 시대에 맞춰 <NEXT 국제문화교류 온라인 아카데미>를 통해, 국제교류에 관심 있는 이는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시청이 가능합니다.

### 국제문화교류 후속 프로젝트 지원 NEXT Follow-up Support

기존의 NEXT 사업 참가자의 지속적인 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전문인력들이 국제무대에서 문화교류를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합니다.

# 전문인력 집중양성과정

기관	참가자	참가기간
부산비엔날레 Busan Biennale	조혜수	2020. 08. 03 - 11. 08
전주세계소리축제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김소리 양지혜	2020. 08. 01 - 11. 30 2020. 08. 03 - 11. 30
자라섬재즈페스티벌 Jarasum Jazz Festival	박준서 양혜란	2020. 07. 06 - 11. 06 2020. 07. 06 - 11. 06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Bucheo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이세은 이송현	2020. 08. 01 - 10. 31 2020. 08. 03 - 10. 30
서울국제작가축제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김누리	2020. 08. 03 - 11. 20
강릉국제영화제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최수민	2020. 08. 01 - 11. 18

부산에서의 긴 산책

# 마스크 끼고 異口異聲<sup>1)</sup>

2020부산비엔날레

조혜수



캐리 영(Carey Young)의 <Declared Void II> 설치 모습 [출처\_ 조혜수]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고 스무 살에 서울로 옮겨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세계 상경이란 사투리 억양 없이 말을 하고, 전망 좋은 40평대 아파트 대신 햇빛이 가로막힌 10평짜리 원룸에서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커뮤니티를 적당히 흥내 낼 뿐 어느 장소에도 깊이 관련될 수 없었던 20대를 지나 집을 채우는 조립식 가구의 영성함을 견딜 수 없어졌을 때, 비로소 나는 스스로를 서울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외지인의 마음으로 부산을 방문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찾아보려 합니다.”

[ 2020부산비엔날레 참여 작가 송민정 인터뷰 발췌 ]

1) 이구동성(異口同聲)을 뒤집은 말.  
이구동성(異口同聲)은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이다.  
입은 같으나 목소리는 다르다는 뜻으로 뒤집어보았다.

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큐레이션과 예술학을 배우는 나로서는, 이번 부산비엔날레가 오래 방치해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새로운 탐험을 연속해 계획하는 일 같았다. 그 일종의 환승 정류장이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부산이라는 것이 새삼 새로웠고, 이번 비엔날레의 참여 작가 중 한 명인 송민정 작가의 인터뷰를 발췌한 것도 그 이유다. 바뀌어 있는 풍경들과 그대로인 사물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일을 하면서 자리를 감각하고, 또 방향을 회전하는 경험이란 흔치 않을뿐더러 매우 귀중하다.

2020부산비엔날레는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라는 주제처럼 문학적 접근에서부터 출발하여 시각 예술가와 음악가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여 부산



(좌) 해외작품 반입 모습(아름 파브리스우스 감독 및 전시 코디네이터들)  
(우) 나다니엘 멜로스(Nathaniel Mellors)의 <구토하는 사람(Vomiter)> 작품 관리 모습 [출처\_ 조혜수]

이라는 도시에 다층적 이야기와 해석을 쌓아가는 독특한 구조로 진행되었다. 문학가(배수아, 박솔미, 김혜순, 김금희, 김숨, 김언수, 편혜영, 마크 본 슐레겔, 아말리에 스미스, 안드레스 펠리페 솔라노, 이상우, 총 11인)들이 먼저 선정되어 2019년 말부터 방문해 부산을 소재로 하거나 출발점 또는 목적지로 삼는 이야기와 시의 집필을 마쳤다. 그 이후 국내의 시각 예술가들(67인)과 음악가들(오대리, 세이수미, 김일두, 최태현, 엘리야스 벤더 로넨펠트, 제이통과 진자, 쇠렌 키에르가르드, 아스트리드 존스, 푸드맨, 무코! 무코!, 김 고든, 총 11인)이 결합했다. 나는 2020부산비엔날레의 전시 전반을 담당하는 전시팀에 배정되었다. 현장실습 인턴으로 발령되었으나 이후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식 전시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감사한 기회를 얻었다.

이번 전시는 부산현대미술관을 주 전시장으로 하여 부산 원도심 일대와 영도의 폐공장에서 진행되었다. 작품들은 예술 표현의 다양성과 부산이라는 넓은 도시를 아우른다. 시각 예술가들과 음악가들이 이야기나 시의 텍스트를 단순히 재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작업의 영감으로 삼는 것이 이 전시기획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는 부산이라는 ‘장소’를 보여준다. 때문에, 이번 부산비엔날레는 불가능한 번역의 시도이자, 긴 산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부산비엔날레를 통해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부산을 처음 방문하는 이들도 작품을 산책



해외작품 반출을 위한 작품 컨디션 체크 과정 [출처\_ 조혜수]

하며 부산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전시 장소였던 용두산(원도심 일대)의 국제시장, 부산근대역사관, 40계단 거리 부근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미국의 개입과 영향 등의 역사적 증거를 담고 있으며, 또 다른 전시 장소였던 영도항 창고 역시 1890년대 교역을 위해 부산에 정착한 최초의 일본인들로부터 식민지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풍요와 성장, 교역을 상징하는 부산항을 보여준다. 역사의 겹이 개인들의 경험과 레이어처럼 쌓이는 지점이다.

“완벽한 번역에 이르는 건 언제나 어렵다. 언어와 언어 사이에는, 또한 그림과 소리, 말과 이미지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한다. 나는 이 전시가 불가능한 번역을 향한 여정이라고 생각한다.” [2020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 아키타 파브리스사우스 서문 발췌]

본래 예술가들은 작품이나 전시에 앞서 새로운 장소에 도착해 리서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생활의 일부가 된 상황에서 이러한 당연한 과정들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했다. 작가들은 자신의 작업 스타일을 버리면서까지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야 했고, 이때 전시지원팀과 전시팀의 도움이 절실했다. 리서치는 물론이고 작품의 제작과 설치까지도 전시팀이 대부분을 전담하여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긴급히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신 덕에, 국내외 일부 작가(박상호, 임호, 라즐로 모홀리 나기, 아라야 라스잠리안숙, 스테판 딜레무스, 그 외 2020부산비엔날레 참가 사운드 아티스트 등)를 직접 담당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갤러리 컨택, 해외 운송 작품 반입, 작품 설치 및 관련 지출 업무, 비엔날레 출품작 번역 등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학부 전공을 살려 도록 제작과 작품 설명의 번역 대조 국문 검수 및 교정교열을 전담했을 때는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뻐했다. 그 외에도 작가 및 작품의 정보 관리, 온라인 개막식 준비, 아티스트 비용 지급 등의 지출 행정 업무, 언론 보도용 자료 교정, 아트 굿즈 관련 업무, 저작권 업무, 작품 관리, 전시장 관리 등의 전시 업무의 디테일을 국제 행사의 규모와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습득했다.



작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가며 작업을 지속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장소 특정적인 새로운 작품들을 창작되는 걸 지켜보면서 나 스스로도 부산이라는 도시를 직접 만지고 길을 둘러보는 과정을 겪을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마치 이 전시의 기획처럼, 끊임없는 변역의 시도 속에서 같은 얼굴의 너머의 서로 다른 말들이 들려오는 것을 더 귀 기울일 수 있었다.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에서 관객이 전시를 만나는 방법들도 새로 개발되고 연구되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전시 오디오 가이드, VR 및 인터뷰 영상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 전과 다른 SNS 홍보 방향의 협조 등에 임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의 전시와 홍보 업무도 익힐 수 있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측에서도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국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도에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따른 전문적 대처들을 폭넓게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예술가들이 고민하고 새로 고안한 방법들에도 감명받는 하루하루였다.

부산비엔날레에서의 일이 끝나고, 앞으로도 비슷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란 예감에 몸이 가볍다. 더 자세하게는 글로컬의 맥락에서 장소를 바라보고, (이번 비엔날레가 시도해보았던 것처럼)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전문가가 되어 나갈 것이다. 매일이 변화의 연속이어서, 이번 비엔날레에 참가한 박솔뫼 작가의 소설 제목이기도 한 ‘매일 산책 연습’처럼 앞으로를 바라보려고 한다.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거창한 것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듯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도 연습하듯이 매일 스치다 보면 자신의 방법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되지 않을까 한다.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장소와 사람들은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 거기에 응답하는 여정을 또다시 계획하고 있다.

※ 본 수록글의 부산비엔날레와 관련된 정보는 2020부산비엔날레 홈페이지 및 도록을 참고하였다.

---

행사명	부산비엔날레 Busan Biennale
행사기간	2020. 9. 5 - 11. 8
행사장소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원도심일대, 영도
홈페이지	<a href="http://www.busanbiennale.org/kr">www.busanbiennale.org/kr</a>

---

조혜수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문예창작과 미디어창작(예술비평)을 전공하고, 동경예술대학 대학원에서 큐레이션을 공부하고 있다. 공동체와 관련된 독립기획을 진행한다. NEXT 집중양성과정을 통해 부산비엔날레 코디네이터로 일했다. <a href="mailto:cho.hyesu.0@gmail.com">cho.hyesu.0@gmail.com</a>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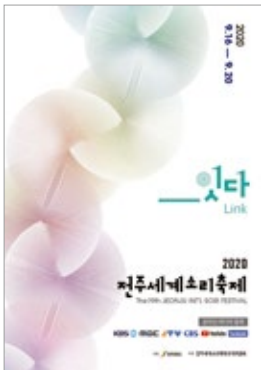
---

# 변화 속에서 세계를 잇다!

—  
전주세계소리축제  
김소리



개막식 리허설 현장- 자막 오퍼레이션 준비 [출처\_ 김소리]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 포스터  
[출처\_ 전주세계소리축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오페라를 공부했었던 나는 오페라의 역사와 자부심에 유럽 사람들을 부러워하곤 했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이런 것은 왜 없을까라는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은 영국 런던에서 일하면서 해결되었다. 생각보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예술과 전통공연에 관심이 많은 것과 최근 한국의 문화예술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귀국 후에는 전공을 살려 한국무용, 전통공연 등 문화예술 업종에서 일하면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것과 해외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것을 장점으로 삼아 문화예술계의 국제 교류 업무를 시작하였다. 국제 교류는 또한 내가 해외에서 한국의 문화예술 업계를 바라보며 아쉬웠던 점들을 스스로 도전해볼 수 있던 분야였다.

모든 분야의 일들이 그러했겠지만, 올해는 유난히도 문화예술의 국제 교류가 힘든 연도였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상당수의 국가의 물리적인 이동이 법적으로 차단되었었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이미 많은 콘퍼런스나 포럼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국제 교류에 대해 논하게 되었고, 많은 공연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당시 내가 국제 교류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던 국제공예페어도 연기되면서 나는 국제 교류의 포스트 코로나를 걱정하게 되었고, 다른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이나 축제에서는 이 과정을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가라는 호기심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NEXT 과정에 합류하게 되었다.

### 전주세계소리축제 ‘\_있다.’

19회째를 이어나가는 전주세계소리축제도 코로나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상반기에 많은 축제가 취소된 사례를 유심히 바라본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기획을 여러 방면으로 수정하였고, 개막공연 ‘\_있다’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성공적인 진행할 수 있었다.

러시아, 캐나다, 이란 등 해외 13개국 9개 지역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한국의 특별 시나위 팀과 함께 실시간 온라인 월드 시나위 ‘\_있다’ 공연을 진행했다. 해외 예술가들은 각자의 지역에 모여 한국에서 전송하는 화면과 소리를 통해 시나위를 연주했다. 기존 연주단의 전용 포지션인 오케스트라 피트(orchestra pit)에는 공연 기술팀과 해외 커뮤니케이션팀이 올라 무대 상황을 중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기술팀이 연주의 한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 흥미로웠던 공연이라고 평가받았다.

특히 이번 한국-러시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투바 등 한국에서 쉽게 만나지 못하는 음악가들도 함께 했는데, 그들의 독특한 음색과 창법, 전통 악기인 발랄라이카와 돌라 등의 악기로 온라인 관객은 물론 축제에서 연결했던 다른 나라의 연주자들에게도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었다.

이번 주제인 ‘\_있다’로 현악기의 특징인 ‘줄’, ‘이음’을 모티브로 하는 3개의 기획 프로그램과 폐막공연인 즉흥 시나위 공연을 통해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함께 뮤지컬,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침체된 예술계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 비대면 국제교류의 도전

비대면으로 축제를 준비하게 되어 안타깝게도 많은 해외 예술가들을 초청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기존의 국제 교류 업무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국제교류업무가 시도되었다. 나에게 첫 번째로 주어졌던 국제 교류 업무는 국제 배송사와 파트너 계약을 맺는 일이었다. 원래 소리축제는 해외 에이전시와 계약서 작성, 굿즈 전달 등 국제 배송 업무와 관련하여 우체국 택배만을 이용하였다. 국가 봉쇄로 소규모 도시에는 우체국 택배를 보낼 수가 없게 되었고, 대도시를 제외하는 마을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보낼만한 국제 배송사를 선택해야 했다. 짧은 기간 모든 국제 배송사의 비교견적을 받아보고, 파트너 할인가를 제시하여 파트너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해외 예술가에게 보낼 국제배송품목 검수  
[출처\_ 김소리]

또, 온라인 공연의 새로운 시도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온라인 현장 리허설 네 번과 각 9팀의 개별 리허설을 1회씩 총 아홉 번 진행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온라인 공연 플랫폼과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한국의 기술팀과 해외 현지의 기술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였고, 모든 해외 예술가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꺼내놓는 진귀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비대면으로 국제 교류 업무를 진행하면서 네트워크의 신뢰성의 문제가 걱정되었는데, 예술가와 해외 기관 등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실패를 염려한 촘촘한 준비 덕분에 새로운 방식으로 네트워킹을 쌓을 수 있었고, 기존의 국제 교류 업무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함께 모색하게 되었다.



(좌, 우) 19x19 챌린지 현장 [출처\_ 김소리]

### 관중 및 비대면 공연을 통한 선제적인 새로운 공연방식 모색

소리축제는 매년 미래 관객 육성 프로젝트 <찾아가는 소리축제>를 진행하는데, 이번엔 그 범위나 수혜인원이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기획방식을 바꿔야 했는데, 이번에는 평소에 찾아가기 힘든 전북지역의 학교를 찾아가는 방식을 택하였다. 소규모로 진행된 덕분에 전교생이 100명도 채 되지 않고 공연장 방문이 쉽지 않은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들의 학생들에게도 문화향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다.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규모 있는 공연만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버린 요즘에 소규모 공연의 몰입감과 관객의 수보다 좀 더 다양한 관객을 모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새로운 공연 방식을 제시했던 기획 프로그램 <19x19 챌린지>는 공연장이 아닌 전주역 광장에서 이루어졌고, 리허설도 없고 1 stage 2 performances 구조로 한 개의 무대에서 두 가지의 공연이 1분 내에 전환되어 인터미션도 없이 진행되는 새로운 챌린지 공연이었다. 총 19일, 209팀, 860여 명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무대였고, 온라인 채널을 통한 실시간 관객 피드백이 가능했던 새로운 공연 방식이었다. 배우, 관객, 무대라고 하는 일반적인 공연의 3요소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연 방식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었고, 이번 시도를 통해 새로운 공연을 기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국제교류 전문인력으로서의 성장

이번 NEXT 과정은 아쉽게도 국제 교류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덕분에 공연기획 및 홍보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었다. NEXT 과정을 시작할 때 처음 멘토링에서 만났던 박지선 멘토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국제 교류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기능성만으로 문화예술계에서 분리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국제문화교류는 국제, 문화, 교류의 3가지 단어의 합성이다. 따라서 외국어만 잘한다고 국제 교류 인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 동시대에 대한 관점의 이해 등과 같은 국제적인 시각과 자신이 속해있는 문화예술에 대해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교류의 행위를 위한 언어적인, 행정적인 기능 및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진행할 수 있는 3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인력을 국제문화교류의 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과정을 통해 나는 국제문화교류의 인력으로 한층 성장하였다. 해외 예술가들과의 소통으로 그들의 예술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획하여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계약서 작성과 같은 여러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던 과정이었다. 본 과정을 발판 삼아 공연예술계의 국제문화교류 인력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

행사명	전주세계소리축제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행사기간	2020. 9. 16 - 9. 20
행사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홈페이지	<a href="http://www.sorifestival.com">www.sorifestival.com</a>

---

김소리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 파견자. 이탈리아 밀라노 Politecnico di Milano와 Accademia Teatro alla Scala에서 공연예술학 석사를 마치고 영국의 오페라기획사에서 아시안 공연매니저로 커리어를 시작하였다. 귀국 후에는 익산문화재단,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등에서 활동하면서 무용, 전통음악 등으로 공연기획의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a href="mailto:sori01199@gmail.com">sori01199@gmail.com</a>
-----	--------------------------------------------------------------------------------------------------------------------------------------------------------------------------------------------------------------------------------------------------------------------------------------

---

#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보낸 4개월

—  
전주세계소리축제  
양지혜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 <있다> [출처\_ 양지혜]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오던 중, 이와 관련해 심도 있는 경험을 쌓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 실무진으로부터 직접 듣는 이론 교육에서부터 국내 축제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실습, 프로젝트 개발로 이어지는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과정을 통해 이러한 나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다.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에 전반적으로 흥미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대학에서 전공한 국가인 러시아와의 교류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러시아와의 교류 사업을 진행하는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실습한다면 러시아와 관련해 배운 내용들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보고, 교류의 절차와 운영 과정 또한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예술계가 많이 위축되었으며, 내가 실습하게 된 전주세계소리축제 역시 새로운 시도를 맞이해야 했다. 축제 규모는 대폭 축소되었고,



공연은 온라인으로 중계되었다. 9월 16일부터 5일간, 총 5개의 공연이 매일 한 차례씩 비대면으로 실시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개막공연 ‘\_있다’가 단연 기억에 남는다. 관객으로 가득 찼던 객석은 텅 비었으며, 연주자가 자리해야 할 오케스트라 피트(orchestra pit)에는 해외 출연진과의 실시간 소통을 위해 공연 기술팀과 해외 커뮤니케이션 팀(기획팀)이 올랐다. 나 또한 그곳에 자리하여 공연 진행을 돕게 되었다.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각국의 연주자들을 연결하여 공연을 진행하기에 안정적인 통신 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는데, 차례를 앞둔 출연진과의 연결이 잠시 끊겼다 다시 연결될 때마다 느꼈던 그 떨림과 안도감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합주 시에는 아직 극복하기 어려운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약간의 간극이 있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간극을 메꾸고자 각 출연진들과 스태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10월 21일~23일과 26일에는 ‘찾아가는 소리축제’가 이어졌다. 이는 문화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올해는 낙서와 스크린 아트 등이 결합된 매직 드로잉 가족극 <두들팝>이 문화적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산간 소규모 학교를 찾았다. 코로나19로 방역 문제가 민감한 만큼, 나는 축제 관계자들의 발열 체크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였으며, 행사의 리플릿 제작을 도와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에 대한 관객의 궁금증과 흥미를 유발하고자 했다. 공연 초반, 극단 배우들을 낯설어하던 아이들이 어느샌가 그 경계를 허물고 공연에 흠뻑 빠져들어 이를 즐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히려 내가 더 큰 위로를 받기도 했으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데 일조할 수 있음에 기뻐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든 예술가들에게 무대를 마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19X19 챌린지>라는 유례없는 도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 전주역 광장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매일 11개의 팀이 릴레이 공연을 선보였다. 전국의 기차역 가운데 전주역을 가장 많이 온 것 같다고 동료분들과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했을 정도로 나에게 있어서는 체력 소모가 가장 큰 행사였다. 하지만 전통 음악, 클래식,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 그리고 현대 무용, 샌드아트 등 다채로

(좌) 2020 찾아가는 소리축제  
(우) 개막공연 <\_있다>를 준비 중인 해외 커뮤니케이션 팀 (기획팀)  
[출처\_ 전주세계소리축제]



운 퍼포먼스 공연의 진행을 도우며 경험의 폭을 한 층 더 넓힐 수 있었기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축제 마지막 날 아침에는 비가 매우 많이 내려 공연 진행이 어려워지기도 했는데, 실시간 중계 시간이 가까워지자 스태프와 출연진 모두가 나 할 것 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썼고, 그 결과 차질 없이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돌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4개월간 진행된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의 현장 실습을 통해 내가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사업 진행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힘을 기른 것이다.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철저한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다양한 종류의 서류가 수반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개막 공연을 위해 해외 출연진들과의 섭외 및 계약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서류 작성을 도운 경험은 이후에도 관련 업무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19X19 챌린지>진행을 위해 출연진들의 계약과 지급에 관련된 서류들을 직접 작성해 보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양식, 결재 절차를 개괄적으로 익힐 수 있었다.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의 근무 경험은 그 자체만으로 큰 성과라고 여겨진다. 유의미한 국제문화교류를 위해서는 상대국의 문화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문화를 제대로 아는 것 역시 중요하고 생각한다. 탄탄한 소리 인프라를 자랑하는 전라북도에서 우리 전통 음악의 근간을 확인하고, 많은 전통 예술가들의 공연 진행을 도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우리 문화를 확충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이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을 활용하고, 배울 수 있는 기관을 모색하여 더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다.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발판으로 삼아 보다 더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 교류에 힘쓸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행사명 전주세계소리축제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행사기간 2020. 9. 16 - 9. 20  
행사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홈페이지 [www.sorifestival.com](http://www.sorifestival.com)

---

**양지혜** 대학에서 러시아학과 문화콘텐츠학을 전공했다. 한국의 문화를 알고자 다녔던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모스크바 교환학생,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서포터즈, 수원시 대학생 대표단 방일 연수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하고,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자 힘쓰고 있다.  
[fluttery\\_@naver.com](mailto:fluttery_@naver.com)

---



#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

제17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박준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라이브 현장. 페스티벌 전체 스텝 기념사진 [출처\_ 박준서]

이번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과정 실습기관이었던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2004년부터 경기도 가평에서 17년 동안 이어져오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 페스티벌 중 하나이다. 매해 뛰어난 국내/국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으며,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비주류 음악에 해당하는 재즈를 메인으로 하는 하면서도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으로부터 사랑받는 대중성을 함께 인정받고 있다. 이번 NEX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자라섬재즈페스티벌에서의 일을 경험해보기 위해서였다.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작년까지 약 7-8년 동안 관객으로 거의 매년, 때로는 페스티벌이 열리는 3일 모두 참석하기도 했던, 가장 좋아하는 음악 페스티벌이었기 때문이다.

약 4개월간의 실습 기간이 끝나고, 처음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 썼던 지원서를 다시 읽어보았다. 거기에는 내가 재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라섬재즈



(상) 자라섬재즈페스티벌 현장.  
2020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과정 스캐치 영상 인터뷰 장면  
(중)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사전제작 콘텐츠 촬영 현장 모습  
(하) 자라섬재즈페스티벌 현장 사무국 직원 기념 사진  
[출처\_박준서]

페스티벌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떤 기획자로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이 쓰여있었다. 이처럼 기대감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그램에 처음 지원할 때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스스로에게 큰 의미를 갖는 행사의 일원이 되는 것은 설레는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두렵기도 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데서 오는 불안도 컸다.

결과적으로, 제17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지원 전에 내가 가진 걱정도 기우였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번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온라인으로 17일 동안 진행되었다. 나는 이번 페스티벌에서 프로덕션 매니저 역할을 맡아 온라인 사전제작 프로그램 제작, 프로그램 편성 및 송출을 담당했다. 영상 프로그램 기획부터 촬영, 그리고 최종 영상 송출 및 라이브 공연 스트리밍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음악 행사 전반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다행히 모든 페스티벌 동료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맡은 파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페스티벌이었기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스텝 전체가 하나 되어 많은 아티스트, 재즈 팬과 함께 성황리에 페스티벌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생각한다.

감사하게도 자라섬재즈페스티벌에서 실습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지금은 자라섬재즈페스티벌 프로그램팀 사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의 반경은 줄어들었지만, 줄어든 선택지 중에서 고민하기보다는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시작할 때 생각하던 것보다 더 멀리 도착한 느낌이다.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자라섬재즈페스티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해준 NEXT 집중양성과정 프로그램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

행사명 자라섬재즈페스티벌 Jarasum Jazz Festival  
 행사기간 2020. 10. 9 - 10. 25  
 행사장소 음악역 1939 및 가평 일대(온라인 중계)  
 홈페이지 www.jarasumjazz.com

---

**박준서**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을 매년 방문하던 재즈팬에서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프로그램을 통해 페스티벌 직원이 된 문화기획 입문자. 문화인류학을 전공했으며,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사회학 연구 번역가/코디네이터로 활동했다. 한국 재즈신이 더욱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되는 과정에 기여하는 문화기획자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joonsuh@jarasumjazz.com

---

# 17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 뒷이야기 (後記)

—  
제17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양혜란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라이브 공연 [출처\_ 양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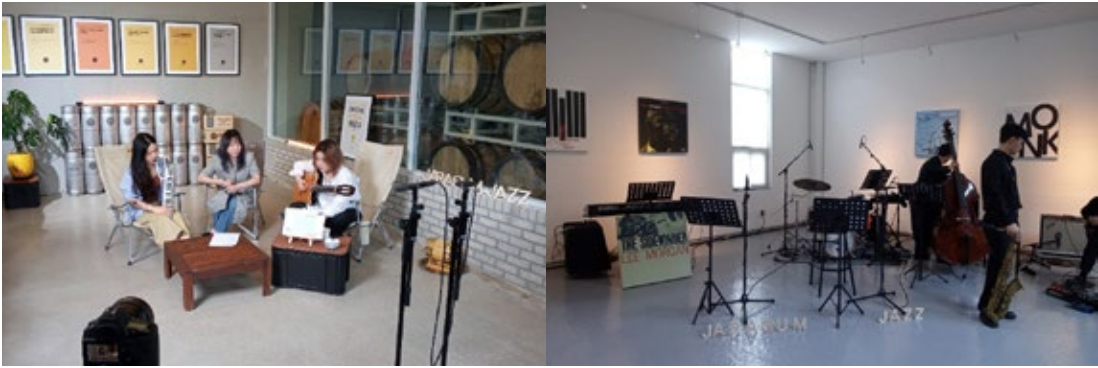
제17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포스터  
[출처\_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자라섬재즈페스티벌에서 일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제17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이다. 2020년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 동안 유튜브, 네이버 TV, U+ TV에서 생중계되었다. 평일에는 재즈와 가평을 주제로 한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송출했고, 주말에는 3시간 동안 라이브 공연을 진행했다.

온라인 페스티벌에 기업 협찬사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온라인 페스티벌은 전부 무료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티켓 매출이 없는 이번 자라섬재즈페스티벌에 협찬사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여러 해 동안 협찬을 이어왔던 기업들과 이전 마케팅 담당자가 연락을 취했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연락을 했고, 다행히도 총 6곳의 협찬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상) 온라인기획프로그램 촬영 모습  
 (하)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온라인 송출 모습  
 [출처\_ 양혜란]



기업과 함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막걸리 브랜드 ‘복순도가’와 협업하여 제17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포스터로 라벨을 디자인 한 컬래버레이션 막걸리를 출시했다. 또한 브랜드 ‘캐논’과 국내 재즈 뮤지션을 위한 상생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뮤지션의 프로필 사진촬영과 공연 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공연 기회를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한글과컴퓨터’와 기업의 캐릭터로 함께 자라섬 체조 콘텐츠를 제작했다.

---

행사명 자라섬재즈페스티벌 Jarasum Jazz Festival  
 행사기간 2020. 10. 9 - 10. 25  
 행사장소 음악역 1939 및 가평 일대(온라인 중계)  
 홈페이지 www.jarasumjazz.com

---

양혜란 부평풍물축제에서 사무간사로 1년 5개월,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 해외공연pd로 7개월, 그리고 이번 next 사업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에서 기업협찬담당으로 4개월 일했다.  
 concert26@naver.com

---

# 부천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나다.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이세은



BIAF2020 개막식 [출처\_이세은]



BIAF2020 메인 포스터  
[출처\_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국제 교류에 대한 막연한 관심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특정한 예술 분야나 축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지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학 시절 자원활동가로 활동했던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서의 활기와 에너지를 즐겼던 경험을 계기로 축제 사무국의 일원으로 축제의 준비과정부터 참여해보고자 했다. 그렇게 운 좋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사무국에 파견되었고, 비록 애니메이션을 전문적으로 공부해본 적은 없지만 어렸을 적부터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걱정과 기대를 안고 일을 시작했다.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매년 부천에서 열리는 국제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아카데미 공식 지정 애니메이션 영화제이다. 행사 기간에는 선정 작품을 상영관에서 상영하고, 그 외에도 프로그램 클래스, 포럼,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 또한 함께 진행된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대부분의 행사는



BIAF2020 상영관 [출처\_이세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온라인 송출도 동시에 진행했다.

페스티벌 사무국에서 나는 주로 심사회의와 프로그램 클래스를 준비를 맡았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심사위원들의 방한이 어려워 모든 심사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심사회의를 위한 선정 작품 링크 전달 및 회의 일정 조율 등, 심사위원과의 개별 접촉 업무를 수행했다. 프로그램 클래스 역시도 강연자가 해외 감독인 만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이를 위한 연락을 담당하고 그 외로 클래스 진행에 필요한 통역사, 모더레이터 및 기술업체와의 미팅에도 참여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히나 인상 깊었던 것은 심사회의였다. 근무를 시작한 첫 달은 다른 업무보다도 선정된 작품 스크리닝에 집중했었다. 영화제에서 다들 경쟁작품, 비경쟁 작품 모두 미리 관람하며 작품과 작품의 감독에 친숙해지는 시간이었는데, 이는 이후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됐다. 애니메이션이라는 분야 자체에 대한, BIAF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작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심사회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작품이 수상하게 될지 예측해보는 재미와,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심사위원들은 감독의 시각으로 작품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듣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프로그램클래스 현장 [출처\_이세은]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사무국에서 실습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중요한 업무를 맡으면서 실무를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비록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 게스트를 한국으로 초청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국제문화 행사를 이끌어가는 축제 사무국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는지,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진행되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 막연하게 국제 교류를 해보고 싶던 나에게 문화예술이라는 방향성, 그중에서도 ‘애니메이션’이라는 분야의 새로운 매력 또한 소개시켜 주었고, 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문화교류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

행사명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Bucheo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행사기간 2020. 10. 23 - 10. 27  
 행사장소 부천(한국만화박물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CGV부천 등)  
 홈페이지 <http://www.biaf.or.kr>

---

이세은 국제교류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문화, 교육,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교류의 경험을 쌓아올리는 중이다.  
[raincorn317@naver.com](mailto:raincorn317@naver.com)

---

#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간, 나를 ‘살린(animate)’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이송현



BIAF2020 개막식 [출처\_ 이송현]



개막식에서 장덕현 부천시장과 필립포르 주한프랑스  
대사, 강병일 부천시회의회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_ 이송현]

영화제 사무국에 출근해서 가장 처음 한 업무이자, 가장 많이 했던 업무는 ‘스크리닝(Screening)’이었다. 출품된 다양한 작품 중 선정되어 장편, 단편, TV&커미션드 등 경쟁에 올라간 작품들을 모두 보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작년, 재작년 경쟁작, 감독의 관련 작을 찾아보았다. 장·단편 합쳐 거의 100편 이상의 작품을 보다 보니 나름대로 작품에 대한 취향을 갖게 되었고, 좁았던 식견도 넓힐 수 있었다. 아름답고 즐거운 이야기를 그리는 것부터, 사회의 모순적인 부분, 잔인하고 슬픈 사건까지 실사 영상으로 담아내기 어려운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애니메이션의 장점이자 특징인 것 같았다. 특히 학교 폭력의 이야기나 벨기에 말빅 역 테러 사건 등을 담은 작품들은 전혀 폭력적이거나 현실적으로 묘사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추상적이고, 초현실적인 표현들로 승화하여 더욱 묵묵한 감정이 전달되었다. 작품 감상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자 조금씩 자신감



이 생겼다. 애니메이션 영화라는 분야에 애착과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작품을 통해 느끼고 알게 된 다양한 경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나누고 싶었다. 머릿속으로 그림만 그려보던 국제 교류의 현장은 그렇게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BIAF(Bucheo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에서 프랑스어권 프로그램을 담당하면서 중요했던 또 다른 업무는 ‘주한 대사관과의 연락’이었다. 행사의 비중 있는 작품들의 주요 국가가 프랑스와 벨기에이기도 했고, 매년 BIAF가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수교 행사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어서 주한 프랑스 대사관, 주한 벨기에 대사관과의 관계 구축 및 꾸준한 연락이 중요했다. 메일로 꾸준히 페스티벌 소식을 안내하였고, 코로나 시국이었으나 주한 프랑스 문화원, 주한 벨기에 대사관과 각별한 주의하에 오프라인 미팅도 진행하였다. 미팅을 진행하면서 게스트 입국 절차 관련하여 협조와 행사 홍보를 요청하였고, 추후 협력 관계를 다지기도 했다. 더 나아가 연락했던 대사관 관계자들이 모두 개막식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가지적인 성과도 이룰 수 있어서 뿌듯했다. 문화를 매개로 각국의 대사님을 뵈고 대화하며 한국의 국제 행사를 소개했던 경험은 개인적으로 큰 자산이자 동기부여가 되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표면적으로나마 각 공관들의 문화 정책, 분위기, 지원 방향 등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필요성도 어렵פות이 깨닫게 되었다.



상영관 앞에서 프로그램팀 스태프와 함께 [출처\_이승현]



공로상 수상소감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는 뱅자맹 르그랑 작가 [출처\_이승현]

이 외에도 BIAF에서 배운 일은 정말 다양했지만,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소통’덕분이었던 것 같다. 처음 애니메이션이라는 분야를 더욱 알아갔던 것도 일단은 먼저 접하고, 관심을 갖고, 더 알아보려고 스스로 공부하게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비로소 감독과 작품을 통해 소통하게 되었고, 관람하러 오는 관객들을 이해하고, 행사와 이 장르를 존중하게 되었다. 해외 공관 및 국내외 감독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꾸준한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작품을 통해서든 전화상이든 ‘매체’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다. 비대면 시국에도 BIAF가 성공적인 개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의 힘이었다.

내가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새로운 분야를 접하며 알게 된 즐거움과 놀라운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당연한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애니메이션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말이다. 머릿속으로 그렸던 모습이 살아 움직여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한 이 시간들은 앞으로 부딪힐 역경 앞에서 큰 자신감이 되리라 확신한다. 경험을 정리하며, 기회를 허락하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더욱 감사한다. 알고 있는 것들을 먼저 나눠주고,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며 다음 세대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준 그들이 문화와 소통의 선구자들이다. 받은 혜택을 잊지 않고, 책임감 있는 국제 교류 인력으로 성장하길 다시 한번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다. 국경도 언어도 장벽도 허물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낼 조금은 더 살만한 세상을 꿈꿔본다.

---

행사명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Bucheo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행사기간	2020. 10. 23 - 10. 27
행사장소	부천(한국만화박물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CGV부천 등)
홈페이지	<a href="http://www.biaf.or.kr">www.biaf.or.kr</a>

---

**이송현** 프랑스어 전공 후 현재 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 석사과정 중에 있다. 프랑스의 문화에 반해 문화의 힘을 경험하면서 한국 문화의 발전과 가능성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문화를 통해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꿈꾸고 있다. 특히 미디어와 영상매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현재 NEXT국제교류인력양성과정을 통해 코로나시대 국제교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songhyun915@gmail.com](mailto:songhyun915@gmail.com)

---

# 위기의 시대에 문학을 이야기한다는 것

—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  
김누리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_작가, 마주보다(박연준, 이만 메르살, 김신식) [출처\_ 김누리]

나는 대학 생활 동안 문화예술교육 단체에서 활동했다. 강연, 세미나, 북토크, 영화 상영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기획했는데, 특히 문학과 영화 분야에 큰 관심을 두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추천으로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주최하는 ‘교차언어 낭독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교차언어 낭독회는 한국문학을 다국어로, 그것도 작가와 번역가의 음성으로 직접 들을 수 있는 흥미로운 자리다. 영어, 일본어 등으로 한국문학을 듣는 것은 굉장히 색다르고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음성으로 울려 퍼지는 작품을 그곳에 모인 모두가 숨죽여 함께 듣는다는 것은 기이한 전율을 주기도 했다. 이후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중 서울국제작가축제는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문학과 사회에 대해 다채로운 토론을 펼치는 글로벌 문학축제다. 본래 서울에서 작가들과 독자들이 직접 만나 활발한 교류의 장을 펼쳐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제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과정을 통해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 준비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었다.



서울국제작가축제 북커버  
[출처\_ 서울국제작가축제]

한국의 14명 작가, 그리고 해외 11명 작가들이 문학, 언어, 성장, 세대, 미디어, 여성, 노동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중에서도 역시 가장 큰 화두는 팬데믹이었다. 독자와 직접 팽팽한 대화를 나누는 대신, 카메라와 조명 앞에서 이야기를 건네야 하는 것은 작가들에게도 생경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이제는 전과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의 대주제는 “내일을 쓰다(Writing Tomorrow)”였습니다.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_작가들의 수다(이다혜, 김 투이, 백수린, 강성은)  
[출처\_ 김누리]



(상)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_개막강연(황석영)  
(하)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_폐막강연(파올로 조르다노, 정세랑)  
[출처\_ 김누리]

안한 오늘, 어떤 내일을 써나가야 할지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국제작가축제는 그 과정의 한 이정표가 되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 작가축제를 통해서 개인의 선의와 열정이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외로워도 슬퍼도>/김세희, 왕웨이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일구고 파괴해온 문명과 세계를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것(망가진 세계에서, 우리는/정세랑, 파올로 조르다노)을 깨달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노동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지 고민했으며(생각할수록 수상한/장류진, 오야마다 히로코) 문학을 통한 마이너리티들의 연대의 가능성을 믿게 되었다(‘나’를 둘러싼 모험/조해진, 치고지에 오비오마). 어쩌면 위기의 시대에 문학의 효용은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좋은 기회를 주신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문화예술 사업과 국제문화교류에 관심 있는 분들께 이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리라

고 생각한다.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문학번역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호응과 관심을 기대해본다.

---

행사명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  
2020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행사기간 2020. 11. 2 - 11. 8  
행사장소 Online  
홈페이지 [www.siwf.or.kr](http://www.siwf.or.kr)

---

김누리 영문학 전공.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독립저널에서 활동했다.  
[smile7156@naver.com](mailto:smile7156@naver.com)

---

# 국제영화제에서 언어와 소통의 본질을 느끼다

—  
강릉국제영화제  
최수민



강릉 포럼 국내 패널 토론 [출처: 최수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나는 이야기 속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본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본질은 보통 문화예술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사용하는 언어나 자란 문화가 다를지라도, 예를 들어, ‘좋아하는 영화’처럼 문화예술에 관한 공감대가 찾아지면 훨씬 빠르고 깊게 소통하며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관객도, 자원 활동가도 아닌 실무자로서 국제영화제를 경험하고자 했다. 국제영화제는 작품은 물론 창작자와 향유자를 비롯해 여러 형태의 교류가 집약되어 있는데, 그들을 모으고, 매개하고, 담론을 활성화하는 국제영화제의 ‘실무’는 실제로 어떤지 알고 싶었다. 관객이나 자원 활동가의 시선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궁금했고, 외국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공고를 접하게 되었다. 나와 같이 국제문화교류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기대가 됐다.

화를 진행하고 영문 스크립트를 작성했다. 또한, 개막작 상영회에 앞서 해외 게스트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응원 영상을 받고, 그 내용을 영문 번역 및 한글 번역하는 것이 내가 맡은 주요 국제 교류 업무였다.

국제 교류를 할 때 우리는 주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영어를 구사하지는 않는다. 강릉 포럼의 해외 게스트들은 모두 각자의 억양과 발음으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뉴노멀 시대 영화제의 미래에 관하여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나는 언어보다도 앞서는 어떤 맥락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선, 영화제의 체계와 영화에 대해 그나마 공부해온 덕분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맥락이 있었다. 그래도 미처 잘 안 들리는 부분은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보면 들었다. 사실 해외 패널의 수가 늘어날수록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되었고, 그러다 도무지 들리지 않는 고유 명사들이 있었다. 그때 순간 화자가 어떤 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인지도 잊은 채 쓰고 있었다는 걸 반성했다. 해당 영화제를 리서치한 끝에, 상영작 감독 이름이었음을 철자까지 정확히 알아내고는 소소한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어떤 외국어를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을 하나의 세계라고 본다면, 우리는 무수한 외국어들 사이에 놓여 있는 셈이다.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핵심은 그 너머의 사람에 대한 관심과 경청임을 되새기는 경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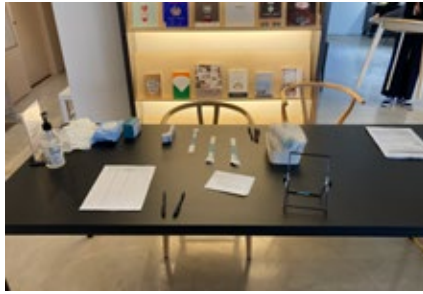
포스터 [출처\_ 강릉국제영화제]

올해로 제2회를 맞이한 강릉국제영화제는 영화와 문학을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래밍과 더불어, 문향의 도시 강릉이라는 지역적 특색을 더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영화제다. 올해는 부득이하게 축소 개최하였지만, 강릉국제영화제만의 행사들은 무사히 오프라인으로 치를 수 있었다. 특히 ‘강릉 포럼’은 세계 각국의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모여 영화제에 관해 논하는 네트워킹 포럼이다. 올해는 모든 영화제를 결산하듯 ‘POST COVID - 19: 뉴노멀 시대의 영화제(POST COVID - 19: Film Festival in The New Normal Era)’라는 주제였다. 해외 패널은 영상을 통해서, 국내 패널은 현장에서 함께 했다. 나는 키노트 스피치를 했던 전(前) 토론토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해외 영화제 집행위원장들의 인터뷰 녹

개막 축하 영상을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어 감회가 새로웠던 기억도 강렬하게 남았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비롯하여 축하 영상을 보내준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영상 아래, 내가 작성한 영어 자막 또는 한글 번역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고 뿌듯한 한편 낯선 책임감도 느꼈다. 문화적인 뉘앙스를 적절히 해석해내고 일종의 문화 최적화를 거치는 번역의 과정이, 문화교류와 적잖이 닮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실상 근무하면서 겪은 실제 교류는 해외보다는 국내, 그중에서도 팀원들과 협업을 잘 해내기 위한 교류였다고 할 수 있다. 행사팀 소속으로 일하면서 국제문화교류의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행사를 기획하는 데 일조하고, 초청팀과 협력하여 해외 게스트 섭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보고 들으며 각 팀 사이의 소통 방식을 익히고자 노력했다. 현장에서는 행사팀과 초청팀만이



강릉포럼 해외 패널 영상 테스트 중 [출처\_ 최수민]



배롱아담 방역데스크 설치 중 [출처\_ 최수민]



방역용품 받고, 영화제 배치 만든 날 [출처\_ 최수민]

아닌 수많은 팀들과 협동해야 했다. 큰 조직의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때문에 전체 교류 행사가 중요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팬데믹 상황의 영향으로 전체 일정이 모두 취소되어, 같은 팀 소속이 아니면 서로의 얼굴이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 한편, 원활한 협업을 위해 리서치 자료 하나라도 내 생각을 더해 문서로 풀어본다는 것에 대해 마음껏 고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게 생각한다.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거리낌이 없어졌다는 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겠다.

영화제는 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게 큰 도움을 주었던 인수인계 기록에서부터 행사장의 엑스 배너 위치나 책상 위의 배치를 비롯한 구석구석, 프로그램의 구성과 홈페이지의 내용 한 자 한 자에 실무자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아 있다. 자잘하고 사소한 것 하나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새삼스러운 깨달음은 일견 막막하게도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무언가 시도하면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면 된다는 희망으로 다가왔다. 앞으로도 목표의식을 갖고, 하면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앞으로도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 어떤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그것이 기본적인 언어를 넘어서 ‘의사소통’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근무 중에 사용했던 영어 표현과 일본어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외국어 자기계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

행사명      강릉국제영화제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행사기간    2020. 11. 5 - 11. 7  
 행사장소    강릉(라카이, CGV강릉,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고래책방)  
 홈페이지    www.giff.kr/kor

---

최수민      미래의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이자 글로벌 크리에이터. '고미술사학'과 '인문학과 문화산업'을 전공했다.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와 문화예술로부터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고 위안이고, 동료이고 싶다.  
 10sumin31@gmail.com

---



# 기파견인력 후속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파견자	파견기관	파견 연도
2020 잔다리페스타 : 프리마베라 X 잔다리, Where music meets	이수정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Centro Cultural Coreano en España	2015 - 2016
프로젝트, 홍도 Project, Hong Do	정은영	아트 포 뉴욕 Art 4 New York	2019
20세기 지하철 헤리티지 : 공공 디자인 아카이브 프로젝트	이소영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e Center in Canada	2017

## 2020 잔다리페스타

프리마베라 X 잔다리,  
Where Music Meets  
>

---

장소	홍대 공연장 및 바르셀로나 공연장 / 비대면 온라인 (한국, 스페인)
기간	2020. 10. 23 - 10. 25
내용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공연산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음악의 새로운 발견'을 추구하여 확장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스페인과의 특별 세션으로 비영어권 국가 간 교류 가능성을 모색하고 아티스트와 종사자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

---

### Remember, Zandari is real

벌써 5년이 흘렀다. 2016년 5월 말, 세계 10대 음악 페스티벌 안에 든다는 스페인의 '프리마베라 사운드' 페스티벌에 한국의 인디밴드 세 팀을 무대에 세웠던 날로부터 말이다. 이후 많은 쇼케이스와 페스티벌에 다녀 보았지만 프리마베라 사운드는 독보적인 페스티벌이었다. 바다를 바로 옆에 둔 도심형 페스티벌은 아티스트가 가장 공연하고 싶은 무대로 크게 알려져 있었다. 2015년 NEXT 프로젝트로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에 파견되어 1년 뒤 기획 프로젝트로 프리마베라 사운드에 한국 밴드의 쇼케이스를 처음 선보인 이후, 매년 한국 뮤지션을 스페인에 소개할 수 있었다. 2019년까지 4년간 11팀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3회의 컨퍼런스에서 스피커로 이야기를 나누며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의 대중음악 공연선과 적극적인 교류를 타진해왔다. 그리고 2020년, 여느 때와 같이 프리마베라 사운드에 아티스트를 보내기 위해 협의를 하던 겨울 어느 날 코로나19가 터지며 팬데믹이 선포되었다. 프리마베라 사운드 페스티벌은 취소되고, 온라인을 통해 프리마베라 프로라고 하는 쇼케이스 및 콘퍼런스 프로그램만 진행되었고, 스피커로서 초청을 받아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가하였다.

5월, 본 파견자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잔다리페스타는 회의 끝에 온라인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해



공연현장 [출처\_ 이수정]



원래 국내 60여 팀, 해외 60팀이 직접 참가하는 쇼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길게 이어졌다. 국내 팀은 참가 수를 반으로 줄여서 직접 사전 영상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쇼케이스 공연은 아무래도 방송이나 일반 뮤직비디오와 다르므로, 실제 공연을 꾸밈없이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제작 단계에서부터 음향감독을 포함한 크루를 꾸려 직접 관리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 팀이었다. 매년 전 세계 모든 뮤지션을 대상으로 오픈콜을 통해 쇼케이스 뮤지션을 선발하는 잔다리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작한 공연 영상과 비슷한 수준의 영상을 모두 공급받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그래서 택한 방법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를 통해 사전 제작에 대한 지원을 받는 등의 협력을 통해 해외 쇼케이스를 수합하는 것이었다. 이에, 프리마베라 사운드 측에 본 협력에 대해 제안을 하였고 ‘카탈루냐 아츠’라고 하는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네티팀의 스페인 밴드를 잔다리페스타 [언리얼 2020]에서 소개하게 되었다.

온라인 공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물리적인 거리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인터넷 환경에서 동일한 접근성을 가지게 되므로,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것이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시차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잔다리페스타의 쇼케이스는 유럽, 미주, 아시아라는 세 개의 큰 시간대를 고려하여 쇼케이스당 3회 송출로 프로그램하였다. 약 15분씩, 총 58팀이 공연하게 되었을 때 걸리는 시간은 약 15시간이며, 이를 3회에 걸쳐 송출하게 되면 45시간이다. 여기에 앞, 뒤로 오픈링 파티와 애프터 파티, 중간에는 국내 관객을 위한 라이브 토크 세션, 해외 페스티벌 영상 등을 삽입하여 총 50시간의 논스톱 방송으로 페스티벌을 구성하였다.

이번 잔다리페스타는 이틀간 누적 조회 수 37,910을 달성하였고,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1,100명을 기록하여 예상외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 또한, 일반 관람용 페이지가 아닌, 국내외 음악 관계자와 뮤지션들을 위한 익스클루시브 룸을 개설하여 공동 관람하였는데, 오프라인 못지않은 집중도를 보여 주며 온라인 쇼케이스 관람의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본 송출은 프리마베라 프로의 온라인 네트워킹 사이트에서 동시에 송출되어 사실상 잔다리페스타만을 통한 쇼케이스가 아닌, 플랫폼의 확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021년, 얼마나 많은 라이브 공연과 페스티벌이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스페인 역시 페스티벌은 물론이고, 공연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의 성과를 예측하기란 어렵다. 다만, 올해 여러 시도들을 통해 음악 공연계에서 일하

는 사람 간 연대하고 아티스트를 지원하며 구체적 성과보다는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며 다시 미래를 꿈꾸는 원동력으로 행사를 치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포스터 국문판(상), 영문판(하)  
[출처: 2020 잔다리페스타]

이수정 | 22noviembre@gmail.com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의 기획운영팀장으로, 2018년 1월부터 창단 멤버로 함께 페스티벌을 조직했다. 피스트레인이 끝나면 잔다리 페스타 사무국장으로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두 페스티벌 사이에는 주로 해외의 페스티벌 및 기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국내외 뮤지션들의 교류를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중개하는 일을 한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에서 근무했고 밴드 쌍쌍, 공연예술단체 박박parkpark의 국내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다.

## 프로젝트, 홍도

### Project, Hong Do >

---

장소	Zoom을 이용한 화상 미팅 및 리허설 진행 / 온라인 화상공연, 예시공 유튜브 채널
기간	2020. 5. 1 - 8. 31
내용	뉴욕 비영리 예술 기관(Art 4 New York)과 국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 멜로드라마의 전형인 희곡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임선규 작, 1936)의 장르적 특징을 다각도로 실험함으로써 한국 연극의 세계 연극계 진출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한국 정통 멜로드라마의 장르적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장면을 재구성하고 온라인 라이브 낭독 공연을 진행함

---

필자는 2019년 국제문화 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발되어 미국 뉴욕에 위치한 Theatre Communications Group 기관에서 한 달 동안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리서치를 수행하고 돌아왔다. 그 당시 다양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직접 경험하면서 후속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다질 수 있었다. 특히, 뉴욕의 비영리 예술 단체인 Art 4 New York (아트 포 뉴욕)과의 협업을 구상하며 글로벌 아티스트들과 함께 공연을 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목표로 하게 되었다. 후속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을 하는 동안 NEXT 기파견인력 국제문화 교류 프로젝트에 지원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홍도<Project, Hongdo> 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화상 공연이다. 본 프로젝트는 뉴욕의 비영리 예술 기관인 아트 포 뉴욕(Art 4 New York)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대표 신파극인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창작하여 온라인 공연 화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

#### Week 1.

주요 제작진 회의 주 1회, 워크숍 진행 주 2회 (화상 미팅 중심)  
[ 워크숍 진행 과정 아카이빙 시작(시각 자료 위주) ]



공연 중 [출처\_ 정은영]

• **워크숍 1:**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원본 7월 27일-8월 2일 대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멜로드라마 희곡의 전형적 특징과 네러티브에 대한 그룹 토론 진행.

• **워크숍 2:** 대본 리딩 및 장면 구성안을 토대로 한 창작 원천(Source) 작업 진행.

• **워크숍 3:** 등장인물의 캐릭터 구체화 작업 진행 및 장면별 표현 방식 극화작업.

**Week 2.**

**주요 제작진 회의 주 1회, 워크숍 진행 주 2회 (화상 미팅 중심)**

• **워크숍 4:** 3차 대본, 1장의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 진행. 1장 대본을 활용한 즉흥극 연습 진행. 표현 방식에 대한 실험. 흥도의 네러티브는 무엇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 **워크숍 5, 6:** 2장의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 및 실험. 캐릭터의 전형성에 대한 토론, 한국 멜로 드라마 캐릭터의 전형성 탐색. 흥도의 전형적인 캐릭터들과 동일하거나 대조되는 미국 희곡의 전형적 인물의 신체화 작업. 장면을 구성하는 사건들을 재해석함. 인과적 개연성보다는 우연의 남발이라는 한국 멜로 드라마의 플롯 구조의 특징을 여러 각도로 실현해본다.

**Week 3.**

**주요 제작진 회의 주 1회, 워크숍 진행 주 2회 (화상 미팅 중심) 온라인 낭독 공연 홍보를 제작 및 홍보 시작, 감정 과잉의 표현 방식을 연기 방식의 변용으로 실험해본다.**

• **워크숍 7, 8:** 사전 녹화 및 최종 리허설 진행. 감정 과잉의 표현 방식을 연기 방식의 변용으로 실험해본다.



프로젝트, 흥도 영문포스터 [출처\_ 정은영]

을 모색하는 이 시기에, 하나의 ‘신파’를 찾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본 작업은 사람들이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이 시기에, 공연예술의 핵심 특성인 현장성과 동시성을 포기한 대신, 관객 접근성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더욱더 폭넓은 창작방식을 적용해볼 기회와 탐색할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의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이 쉽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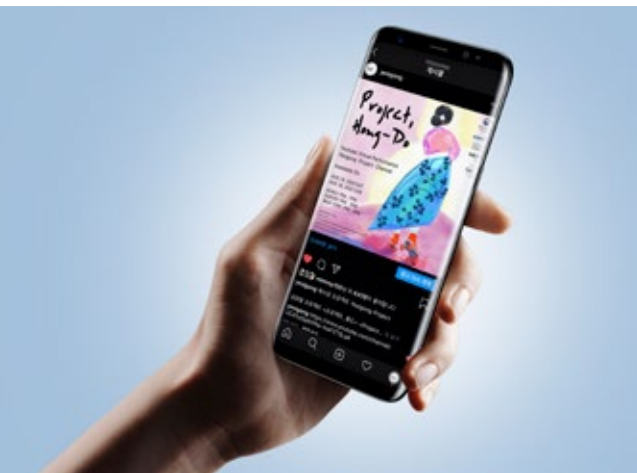
<Project, Hong-Do 프로젝트, 흥도>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국내외 아티스트들과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과 문서공유 프로그램 구글



공연 중 [출처\_ 정은영]

본 프로젝트는 공연예술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은 이 시기에, 일종의 돌파구로서 모색되고 있는 ‘온라인 공연’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는 ‘현대의 신파가 무엇인가?’하는 본 프로젝트의 드라마터그적 질문에 부합하는 대답이 되었다고 자평한다. ‘신파극’이 최초에는 전통연희와 대비되는, ‘NEW WAVE’의 의미를 지녔듯, 우리도 공연예술이 다양한 생존전략

도큐먼트(Google Document)를 이용하여, 작품에 대해 토론하고, 구성을 논의하고, 장면을 창작하고, 촬영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외에 있는 아티스트들은 흥미와 열의를 가지고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 그들의 열의는 단순히 이국(異國)의 희곡을 가지고 작업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해외의 창작자들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양한 문



SNS 홍보 [출처\_정은영]

제에 직면해 있는바, 창작자로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느끼고,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본 작품을 창작하는데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었다.

결과적으로, 본 프로젝트는 해외 아티스트들에게 한국의 희곡과 문화/역사를 소개하는 기회로도 작용했다. 본 희곡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것을 변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아티스트들의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우리는, 희곡 자체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유튜브 자료는 물론이고, 기타 참고자료, 희곡에 대한 논문자료 등을 찾아 번역하여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 아티스트들에게 한국과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에 이해도 및 관심도를 높일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한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에 따라, 공연예술은 전례 없던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시기임에도 창작자들은 창작에 대한 열의가 있고, 관객들 역시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바, 공연예술 역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우리는 본 온라인 공연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창작활동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실제로 꽤 흥미로운 작업이었다. 본인은 앞으로도 연극이 가지고 있는 연극성은 잃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와 협업하며, 다양한 방식의 연극을 창작해보고자 한다. 관객과 그리고 협업하는 아티스트들과 직접 대면할 수 없다는 것에 좌절하지 않고, 작품, 여러 창작자들, 그리고 관객들과 더욱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

**정은영** | eunyoungbonajung@gmail.com

현재 공연 기획 단체인 예시공 프로젝트의 대표로 활동중이며, 공동창작을 기반으로 한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국내외 공연 예술 전문 인력과의 협업과 문화교역 역할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



## 20세기 지하철 헤리티지

### 공공 디자인 아카이브 프로젝트

>

**장소** [오프라인 전시] 서울시 종로구 낙산길 19  
[온라인 전시] www.metroofseoul.com

**기간** 오프라인\_2020. 12. 19 - 1. 1 / 온라인\_2021. 1. 15 -

**내용** 서울과 런던의 지하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20세기 지하철 시대가 남긴 다양한 유산들을 건축, 시각 디자인, 문화라는 세 관점으로 재조명함. 온·오프라인 전시 형식으로 두 도시의 시민들과 소통하고, 결과물을 책으로 출판하여 향후 세대의 공공 디자인 분야의 이해와 발전을 도모함

과거 학부과정 졸업 이후 주캐나다 한국문화원에서 5개월간 예비인력(인턴)으로 근무했던 계기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주최한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20세기 지하철 헤리티지 프로젝트>는 <메트로오브서울>이라는 개인 프로젝트를 공공적인 차원에서 확장하고자 했던 시도로 볼 수 있다. 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면 콘텐츠의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 버렸을 수 있을 것이다.

<메트로오브서울>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건축을 공부하고 직장에서 디자인 실무를 하며 가지게 된 생각들과 관련이 있다. 석사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도시 교류 / 문화 사업들을 연구하곤 했는데, 특히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고 이를 요즈음 사람들의 시선과 관점으로 해석하여, 콘텐츠로 새로운 부가 가치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상상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 우연히 서울을 소개하는 90년대 안내 책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책이라는 시각 매체를 통해 서울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경험을 하면서 이를 콘텐츠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전시 공간 [출처\_이소영]



열람실\_서울-런던 지하철 전시 [출처\_이소영]

의지가 생기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초반에 기획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익숙했던 런던의 지하철 시각 유산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모더니즘인 메트로랜드> 프로젝트의 운영자와 인연이 닿아 국제 교류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후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큰 부분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찾는 과정에 할애하며 리서치 과정을 프로젝트의 중요한 방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와 국립현대미술관의 콘택트 포인트를 알게 되었으며 마침내 서울 지하철 건설 당시 근무했던 분들을 찾으며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스토리가 전시에 재미있게 녹았던 것 같다.

본 전시의 기획 의도는 최종적으로 아카이빙 북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한 과거 자료, 건설지, 책 사진, 사운드 등의 ‘도움’을 받아 개인이 느끼는 서울과 한국성, 20세기의 건설의 시대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특히 20세기의 유산인 지하철체, 1기 지하철의 초반 디자인 간판, 벽화, 타일, 외장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해가는 도시 환경을 누군가 기록하지 않으면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프로젝트는 마침 80, 90년대의 건축과 디자인을 주제로 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와도 맥락이 맞아, 제안을 받고 참여하게 되었으며 프로젝트가 소개되기

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교류의 기반이 위태로웠던 2020년이었지만, 오히려 한국과 서울만의 콘텐츠를 다시 바라보고, 상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 프로젝트가 아주 일부분 기여하는 자료로 남기를 희망한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으로 제일 처음 이용하고, 가장 자주 접하는 서울의 지하 공간을 기억하고 기념(celebrate) 하면서 다른 상상력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소영 | metroofseoul@gmail.com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했으며 이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과정생으로 수학하고 있다. 20세기 이미지와 시각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으며, 20세기 서울이 남긴 시대적 원형과 대안을 기록하는 <메트로오브서울>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 국제문화교류 연구활동모임

## 모임명

Curator24h

KOPOS

## 연구 활동 주제

국내외 신진작가, 기획자 기반으로 한 국제문화교류플랫폼 구축

러시아 및 구소련국가들과 한국의 문화교류 조사 및 연구

건강한  
문화네트워킹을 위한 모임

경계 핑퐁

꾸미

예술가의 지구

팬데믹 이후 국내외 문화예술 활동방식의 변화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예술가들의 국제교류 방식

비대면 시대에 맞는 국제교류 온라인 플랫폼의 제작 방향성 모색

국내 및 동남아시아 OTT사례 비교 분석 연구

팬데믹 시대의 시각예술계 국제교류 변화상 연구 및 대처 방안 모색

## 구성원

김희은, 정다운,  
윤가영, 음희선, 송지원

최한나, 신진희,  
김가은, 박병연

김보배, 손보운,  
황규상

김애선, 권혜리,  
윤지수, 신동근

김맑음, 이세은,  
이송현

감윤경, 전민지,  
최혜윤



## 국내외 신진작가, 기획자 기반으로 한 국제문화교류플랫폼 구축

### Curator24h

김희은, 정다운, 윤가영, 음희선, 송지원



Curator24h 연구활동 [출처\_Curator24h]

#### ●● 모임 소개

Curator24h는 현재 미술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큐레이터 4인과 디자이너 1인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각자의 시각으로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조망하고 탐구 및 비평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해외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각국의 기획자 그룹과 교류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모임은 기존 미술계 내 네트워킹과 기획의 한계점을 느껴왔으며 이에 새로운 국내외 온라인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최근 모임의 구성원들은 현장에서 미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현 미술계의 작가, 기획자 및 평론가들이 국내에 한정된 네트워크의 한계를 체감하였다. 해외 작가들의 국내 진출 통로는 국내 기관에서 진행하는 레지던시 혹은 대형 전시에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본 모임은 해외 신진작가들의 작업과 인터뷰를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외 작가, 기획자 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온라인 전시를 진행함으로써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국제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 ●● 연구 결과

### [ 플랫폼 조사 및 시장 수요 파악 ]

- 기존 국내 플랫폼의 경우, 정보가 한정적이며 접근도가 매우 낮은 편
- 이를 보완하고자 본 플랫폼은 국내외 작가들과의 인터뷰(최대 3개 국어 지원) 진행, 구인구직 서비스 운영, 참가자 프로필 아카이브 구축과 같은 네트워킹 환경 구축

### [ 국내외 온라인 전시 조사 분석 ]

기존 VR 전시 및 3D 전시의 경우, 구현 효과의 한계가 보이는 상황. 미디어를 포함한 회화의 경우 3D 공간에서 전달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발견.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작가와의 협의를 통해 참여형 액티비티로 전환하여 전사-요가(관객 참여 프로그램)를 동영상으로 제공

### [ 온라인 플랫폼 자문 결과 ]

#### 1) 기술 설계 부문

- IT 전문가 자문 내용을 토대로 플랫폼 Curator24h 웹페이지 공통모듈 설정, 운영 기본 정책, 권한 설정 및 수정 완료
- User flow, Logic process, IA 정보구조화 설계를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과 이용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UI 최적화

#### 2) 디자인 부문

웹 접근성, 표준 호환성을 준수하여 접근이 쉬운 웹 사이트 설계, 이미지를 주로 활용하여 가독성이 높은 디자인 및 직관적인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정보 검색에 효과적인 디자인 구축, 사용자 필요 정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콘텐츠 구성

### [ 향후 연구 방향 및 운영 방안 소개 ]

#### 1) 기술 부문

온라인 플랫폼 상에 참여자가 프로필 탭/ 구인공고 탭/ 해시태그 검색 추가 구현 필요

#### 2) 콘텐츠 부문

국내외 신진작가 추가 발굴 및 인터뷰 지속, 기존 인터뷰 한 작가 작업 추적을 통한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온라인상에서 효과적으로 구현 가능한 전시 콘텐츠 추가 제작



## 러시아 및 구소련국가들과 한국의 문화교류 조사 및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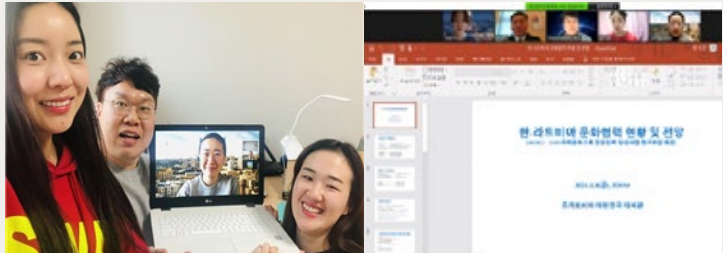
### KOPOS

(Korea and Post Soviet countries)

최한나, 신진희, 김가은, 박병연

#### ●● 모임 소개

코포스(KOPOS)는 한국과 구소련 국가들(Korea and Post Soviet countries)의 약자로 한국과 구소련 국가들과의 문화교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다. 구소련 지역과의 문화교류에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지닌 팀원들이 모여서 지난 2개월 동안 이 지역 국가들과의 상호 간 깊이 있는 문화교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이 지역은 공연 예술 분야가 매우 발달하였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15개국이 포함되어 있는 구소련 지역을 대표하여 5개국을 선정하였다.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지역을 대표하는 러시아의 주요 도시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표하여 카자흐스탄, 발트 지역을 대표하여 라트비아, 카프카즈 지역을 대표하여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동유럽 지역을 대표하여 우크라이나를 선정하여, 지난 30년 기준으로 한국과의 문화교류 현황을 조사했다. 그리고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제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물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포함한 공공기관들과 문화교류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민간기관과 개인의 교류, 협력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KOPOS 오프라인(좌), 온라인(우) 모임 [출처\_ KOPOS]

#### ●● 연구 배경 및 목적

2020년은 한-러 수교 30주년으로 다채로운 문화교류가 진행되었으나,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오프라인 교류가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2021년은 한국과 발트 3국 교류 30주년이며 2022년은 중앙아시아, 카프카즈, 동유럽 지역과 한국과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문화교류를 준비, 진행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본 모임은 한국과 구소련 국가들 간의 문화교류 현황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시기의 적절성을 인지하여 지역적 사례 분석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영미권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다소 생경

했던 구소련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들은 발레, 연극, 음악 등의 공연 예술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더욱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의 범위는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1990년도 소련의 붕괴를 거쳐 한국과 이 지역의 국가들과의 국가 수교를 맺은 90년도 초반, 그리고 현재까지의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교류의 현황을 기반으로 앞으로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지역들과의 문화교류의 미래를 예측해보기 위해 노력하였다. 문화교류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공연예술의 장르를 통하여 깊이 있게 진행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 ●● 연구 결과

- 공연 장르의 다각도를 통한 획일적이고 일회적인 교류에서 각 분야에서의 쌍방향 교류가 필요함
- 대도시 중심의 교류가 아닌 중, 소 도시 간의 교류 추진도 확대해 나가야 함
- 중앙아시아 지역을 비롯하여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한국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화교류가 미비하고 장르의 제약, 이 있는 편이므로 앞으로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함
- 한국의 문화 이미지 향상 및 제고를 통하여 구소련 국가로부터 문화적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함
- 단순 일회성 교류가 아닌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교류를 위해서는 문화, 예술 부분의 교육기관 간의 교류 및 극장 등 유관기관들의 꾸준한 합작과 협업이 중요함
- 이 지역 내에 한국의 문화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요구되며, 국내에 이 지역의 문화를 다양하게 소개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문화 및 공연예술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함



## 팬데믹 이후 국내외 문화예술 활동방식의 변화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예술가들의 국제교류 방식

### 건강한 문화네트워킹을 위한 모임

김보배, 손보윤, 황규상

#### ●● 모임 소개

연구모임의 시초는 서울시립대 문화예술 공부를 전공으로 하던 네트워크가 시발점이 되어 비공식적으로 문화예술의 각 분야의 현 이슈들을 공유하고, 현상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같은 문화예술계에 있지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파티 기획자 1세대(현재 문화기획자), 언어적 강점을 가지고 컨벤션 및 국제회의를 기반으로 하는 신진연구자, 공공 문화복합시설에 근무하며 다층적인 예술가와 기획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공공영역 문화매개자를 중심으로 한다. 각 영역에 대한 이슈들을 다양한 네트워크들과 함께 커피살롱과 같은 형식으로 단적인 현재와 획적인 히스토리와 함께 편한 담론형식들을 논의하고 있다.

#### ●● 연구 배경 및 목적

▪ 팬데믹 이후 급작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 생태계 변화가 일어났고,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통방식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국내 10여 년 동안 성장하고, 제도화된 국제문화교류 측면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안전 문제에서 기존 예술가나 기획자를 직접적으로 파견 및 대면했던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활동 모습 [출처\_건강한 문화네트워킹을 위한 모임]

- 특히 국내에 초점화되어있던 문화예술계를 벗어나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현상에 대한 트렌드 연구와 함께 국내외 예술가 및 기획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보다 실용적인 탐색적 연구를 통해 각 분야별 이슈와 그에 대한 실천적 방안 에 대해 도출해 보고자 한다.

- 금번 연구의 연관성과 실효성 있는 다양한 플랫폼에 고민 하는 다양한 방식의 소통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방법을 증대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로서 고 려한다.

## ●● 연구 결과

코로나19이후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기획자,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생태계의 변화와 체감적 변화를 보다 정량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질적인 현장성이 기반이 되는 문화예술계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렵다고 하지만 보다 구체화해보고, 그럼에도 이를 다른 방식의 해법으로 방법안을 모색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문서 리서치, 인터뷰, 설문조사 형식으로 탐색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연, 전시, 컨템퍼러리 아트 등 장르에 따라 미세하긴 하지만, 위드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에서 다른 방식의 소통과 실험적인 시도들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고유성이 사람과 사람, 사회, 국가를 넘는 연결적 망의 매개이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다시 되 내기는 작업의 진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예술 가치, 관객 개발, 기술 접목, 현장성, 플랫폼, 매뉴얼 개발, 문화적 이해도와 신뢰와 스킨십’등의 항목별 구분하고, 현재의 당면한 이슈와 필요한 방안과 실질적인 액션과 예시 등을 연계하여, 분야별 방향(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예술 지형도가 변하고, 생태계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경계의 시점에서이다. 비단 코로나19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닌,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1단계부터 섹터를 나눠보고, 시도



오프라인 활동 모습 [출처\_건강한 문화네트워킹을 위한 모임]

해 볼 수 있는 시도들을 실행하고,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고 소통하면서 완벽한 정답이 아닌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교류란 결과론적 성과보다 과정 중심형으로 단계별로 나아가는 것에 이해도를 가지고 공통의 가치 제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온라인 소통이 증대되면서 ‘우리’ → 개개인‘나’로 변화에 따른 소통 방식 또한 변화한다. 한 공간에서 만나면 ‘우리’의 특성이 강하나, 온라인은 ‘개개인’에 포커스가 된다. 경험을 반추하고 상기하는 시간을 교류하는 과정과 지속적인 소통 속에 ‘팬데믹 이후에 접점을 갖는 것, 접촉함’속에 해답이 있다.

지나치게 빨랐던 그간의 시간을 조금은 천천히 서로를 알아 가는 과정이 ‘위드코로나’ 시대의 첫 번째 국제문화교류 미션이다.



## 비대면 시대에 맞는 국제교류 온라인 플랫폼의 제작 방향성 모색

### 경계 핑퐁

김애선, 권혜리, 윤지수, 신동근



전시관람 [출처\_ 경계핑퐁]

### ●● 모임 소개

미디어 아티스트 김애선과 미술비평가 윤지수, 배우 신동근, 큐레이터 권혜리는 동 시대에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류 방식과 담론들을 이 모임을 통해 리서치 하고 함께 공유한다. 또한 이를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들과 함께 비교 분석 한다. 모든 리서치 결과를 참조하여,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제작 방향성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는 향후 전시 및 공연을 기획할 때 바탕이 될 아트 허브가 될 것이다.

### ●● 연구 과정 및 결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로 다른 분야를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를 통하여 이 어려움 또한 국내 문화예술 학제간의 교류부족이 원인이며, 동시에 국제 교류 의 장이 될 레지던시를 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팀원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리서치를 진행하였고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플랫폼으로써 시 공간의 경계 없이 동시대의 문화예술교류를 하는 것을 취지로 하였다. 따라서 리서 치는 김애선은 국제 온라인 플랫폼 변화조사, 윤지수는 국내 예술 레지던시 및 플랫 폼 조사, 권혜리는 VR 중심의 실감형 전시 콘텐츠 조사, 신동근은 실감형 공연 콘텐 츠 조사로 진행되어졌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톨 Zoom,



전시현장 리서치 [출처\_ 경계핑퐁]

Miro를 통한 remote 작업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전시들을 현장답사하며 동시대적인 안목을 기르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리서치의 결과물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각자 리서치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향후 리서치 결과물로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를 만들고 국제적인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

### 8차례의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교류의 한계점들을 나누었다.

**1차** 회의에서는 국제 우먼, 테크놀로지 스팀 활동을 하고 있는 스페인의 Atenea conference에 참여 하여 국제 예술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참여자 김애선의 국제 워크숍을 통하여 스페인과 한국예술가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이를 통하여 코로나 시대에 비록 물리적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스크린을 통하여 원래의 오프라인에서만 하였던 워크숍을 온라인의 형태로 만남을 확장할 수 있었다.

**2차** 회의에서는 각자의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무경계 핑퐁 팀의 컨셉을 명료히 하려고 하였고 브랜딩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 회의 및 컨셉을 잡아 “BBculture”라는 명칭과 로고를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의논해 보았다.

**3차** 배우 신동근 님의 VR 허수아비 영상 관련 이야기를 들으며 VR 공연 콘텐츠 경험을 나누어 보았다.

**4차** 본 회의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기관에 도입된 ‘실감형 콘텐츠(immersive content)’에 대해 살펴보았다. AR, VR, AI 등의 첨단 기술들이 실제 박물관, 미술관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국내외 실감형 콘텐츠의 대표 사례들을 둘러보았다.

**5차** 신웨이 대만 레지던시 큐레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그가 진행한 HFF 2020 해외 온라인 레지던시 사례 조사와 국내 레지던시 사례비교 분석을 통하여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6차** 참여형 VR 공연인 <이중으로 걸어 다니는 자> 관람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 이승무 교수님과 VR 영상콘텐츠



Platform L 현장답사 [출처\_ 경계핑퐁]

에 관한 인터뷰를 통하여 가상현실과 물리적 세계에서 배우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7차** 신동근 님의 움직임 워크숍을 통하여 향후 이뤄질 가상현실 공간에 대한 상상력 연습을 하였고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에 대해서 의논해 보았다.

8회 페이스북에 각자 리서치한 결과물을 업로드 하였고 최종 보고서 작성 준비를 했다.

**8차** 회의를 통해 국내외 문화예술 플랫폼에 대해서 조사 비교하였고, VR 전시나 공연 등이 열리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도 의논했다. 또한 가상현실(VR/AR)을 활용한 레지던시의 가능성 또한 토의할 수 있었는데, 근미래에는 가상세계 토대의 교류가 증진되리라 생각하고 빗물질적 작업의, 그리고 물질적 작업들의 국제 교류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BBculture 플랫폼은 문화예술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또한 국내외 예술인들이 모여 자료를 공유하고 향후 전시 및 레지던시를 열 수 있는 온라인 국제 교류 기반이 될 것이다.





## 국내 및 동남아시아 OTT사례 비교 분석 연구

### 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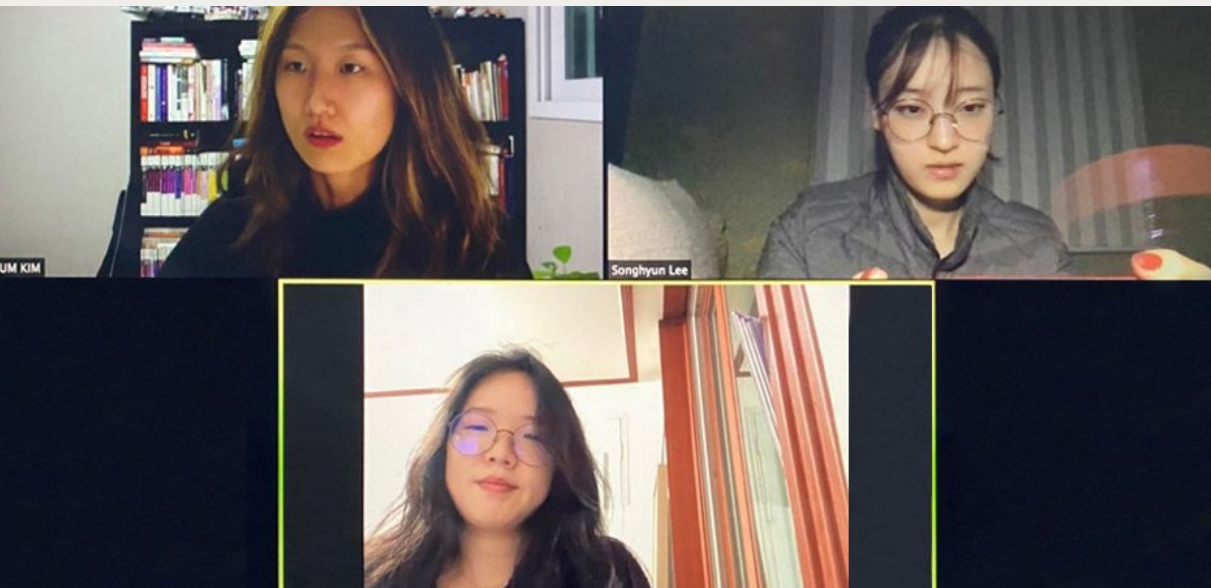
김맑음, 이세은, 이송현

#### ●● 모임 소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의 3인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 활동 모임 <꾸미>는 비대면 시대 급속히 변화하는 미디어 패러다임과 '포스트 넷플릭스'라 불리는 현 상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등장한 OTT 플랫폼들과 콘텐츠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 교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 연구 배경 및 목적

다양한 연령층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높은 접근성과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COVID-19으로 인한 여가생활의 변화 등으로 OTT 플랫폼의 활용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전 세계 OTT 시장은 2018년 약 87조 원 규모였고, 2022년에는 162조 원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OTT 시장의 선두주자 넷플릭스(Netflix)는 올해 1분기 구독자 1억 8,286만 명을 돌파했다. 넷플릭스는 해외 드라마, 해외 영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제공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 콘텐츠 수가 많지 않으나, 최근 한국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는 추세다. 텐센트(Tencent)는 아이치이(iqiyi)와 '동남아 넷플릭스'로 불리는 아이플릭스(flix)를 인수하며 점점 아시아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한국 콘텐츠와 콘텐츠 제작사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며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



온라인 활동 모습 [출처\_ 꾸미]



본 연구는 넷플릭스와 텐센트를 중심으로 현재 플랫폼 전략을 살펴보고 두 플랫폼으로부터 투자, 제작비를 제공받아 제작된 한국 콘텐츠들 중 성공적인 사례들을 찾아보고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어떻게 국제교류로 이어질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 연구 결과

넷플릭스의 첫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시리즈인 <킹덤>은 컬러 콘텐츠로 작동하였고 OTT 사업자와 한국 콘텐츠 제작자의 협업은 한국 콘텐츠 시장의 확대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스위트홈>은 네이버에서 연재하던 웹툰을 원작을 콘텐츠 IP를 확장시켰고 양질의 콘텐츠와 더불어 유통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벨류체인(CPND) 구조를 갖춘 애플과 CJ, SK텔레콤 등의 기업들에 장기적인 투자와 뛰어난 콘텐츠를 보유한 제작사들과의 협업을 장려하여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홍콩의 대표 OTT 플랫폼인 Viu는 한류 콘텐츠를 핵심 콘텐츠로 활용하여 동남아시아 및 중동지역 17개 국가에서 서비스 중이다. 이처럼 국내 기반의 OTT들이 소유한 콘텐츠들을 활용하고 자체적으로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하여 해외 시장으로 확대하고 향후 뛰어난 콘텐츠를 소유한 국가와 공동 리메이크와 공동투자를 통해 현지화와 더불어 공동 참여를 통해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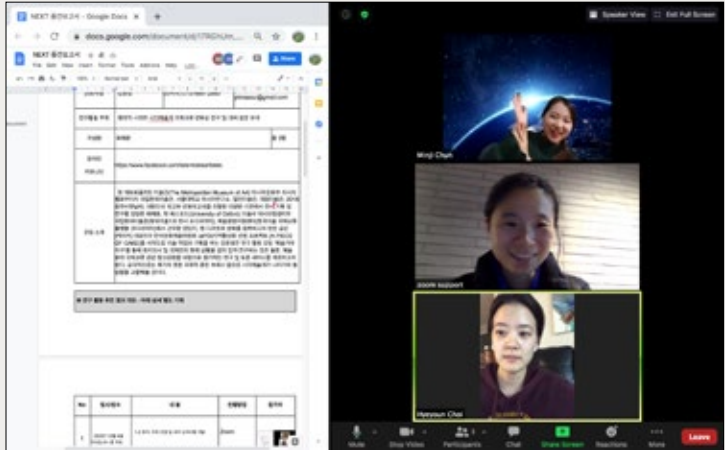
오프라인 활동 모습 [출처\_ 꾸미]



# 팬데믹 시대의 시각예술계 국제교류 변화상 연구 및 대처 방안 모색

## 예술가의 지구

감윤경, 전민지, 최혜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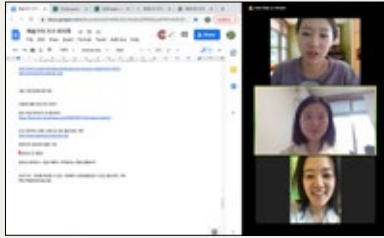
활동 모습 [출처\_ 예술가의 지구]

국제교류 기반 문화예술 기획 분야 활동을 국내외에서 폭넓게 진행해 온 연구 모임 '예술가의 지구' 구성원 3인(감윤경, 전민지, 최혜윤)은 2020년 초반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술 분야에서의 변화를 직접 겪게 되면서 본 연구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본 모임은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국제 시각예술 레지던시 사업의 진행 현황, 시각예술 국제 교류전의 기류 등 코로나로 인한 시각예술계의 변화상을 사례 조사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위 연구 내용을 기초로 하여 시각예술계 국제교류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고민하였다.

### ●● 연구 진행

총 8회 온, 오프라인 연구 모임

1. 온라인 플랫폼 활용 작품활동 사례 조사
  - <PANDEMIC RACISM>
  - <MIA COLLECTIVE ART: THE COVID-19 DIARIES: THE NEW NORMAL>
2. 온라인 레지던시 사례 조사
  - MEDIA HOMES Residency
  - Barbican Center Instagrammers in Residence
  - ASEF Virtual Workings



활동 모습 [출처\_ 예술가의 지구]

### 3. 레지던시 관련 기관 대처 사례 조사

- 일본, 삿포로 텐진야마 스튜디오
- 중국, 크리스탈 루스 벨 레지던시

### 4. 인터뷰 진행

- 필리핀 미술 기관 파라 사 싱잉 감독, 마이카 핀토
- 베를린 기반 시각예술 작가, 이미레

## ●● 연구 결과

예술가의 지구 연구모임 기간 중 총 8회에 걸친 회의 진행, UNESCO Webinar: Fourteen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the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세션 참여, 필리핀, 독일에서 온라인 프로젝트를 담당 및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 시각예술계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진행을 통해 구체적 대안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회의 결과, 온라인 레지던시 및 온라인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시차를 넘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도모하는 장의 부재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 대안 제안

예술가의 지구는 ① 전 세계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②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레지던시, Open Call, Grant, 국제교류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협업 기회를 검색해볼 수 있으며, ③ 각 지역의 잠재적 파트너와 교류하며 실질적인 정보를 통합하고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대안적 플랫폼이 각종 국제교류 온라인 프로젝트를 새롭게 도모하고자 하는 전 세계 예술계 종사자들에게 활발한 교류의 장, 정보 공유의 장으로 기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예술가의 지구 3인 [출처\_ 예술가의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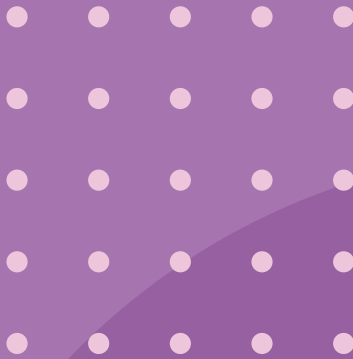




컨퍼런스

—  
온라인 아카데미

—  
디렉토리북



##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양성 콘퍼런스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는 국제문화교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주요한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이 생기고 오프라인 교류는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비대면 시대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교류를 위해 어떠한 인력을 양성해야 할까. 「2020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콘퍼런스」를 통해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과 국내·외 사례를 알아보고,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네트워크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식의 인력양성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유튜브 라이브 댓글을 통해 참가자와 전문 패널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으며, 비대면 시대 실천 가능한 국제문화교류 방법, 타 국가 기획자와의 교류 방법 등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번 콘퍼런스를 시작으로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의 논의의 장이 정기적으로 마련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정책과 사업들이 생겨나기를 기대해 본다.



NEXT 콘퍼런스 종합토론 [출처\_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NEXT 콘퍼런스 홍보물 [출처\_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NEXT 콘퍼런스 해외사례 발표 [출처\_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주제 \_ 비대면 시대 지속가능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인력양성의 정책과 방향
- 일시 \_ 2020년 12월 2일(수) 13:00 - 15:30
- 참여방법 \_ KOFICE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user/koficeculture](http://www.youtube.com/user/koficeculture)
- 프로그램 구성

구분	시간	내용 및 참가자
제 1 부	개회	13:00-13:0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소순천 사무처장 인사
	주제발제 1	13:05-13:25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양성의 중요성과 국내사례 김혜인(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제 2	13:25-13:40 해외사례   호주예술위원회 인터내셔널 리더십 프로그램 ‘Creativity Connects Us’ Thea-Mai Baumann(호주예술위원회 역량강화 담당 디렉터)
	주제발제 3	13:40-13:50 민간사례   APP(Asian Producer’s Platform) CAMP 박지선(프로듀서그룹 도트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휴식	13:50-14:00	휴식
제 2 부	종합토론 (LIVE)	14:00-15:00 <b>종합토론</b> <b>모더레이터</b> 김은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교류기획부 부장) <b>패널</b> 김세준(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외식학부 교수) 김자현(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박지선(프로듀서그룹 도트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박소윤(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 팀장)

# NEXT 국제문화교류 온라인 아카데미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는 2021년부터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국제문화교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아카데미를 런칭하였다. 국제문화교류 기본 개념부터 분야별 마켓 트렌드, 전문가들의 인터뷰까지 국제문화교류의 생생한 현장이야기와 실무 Tip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현장 종사자 및 예비인력의 국제문화교류 역량 강화를 위해 준비된 온라인 아카데미는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문화로'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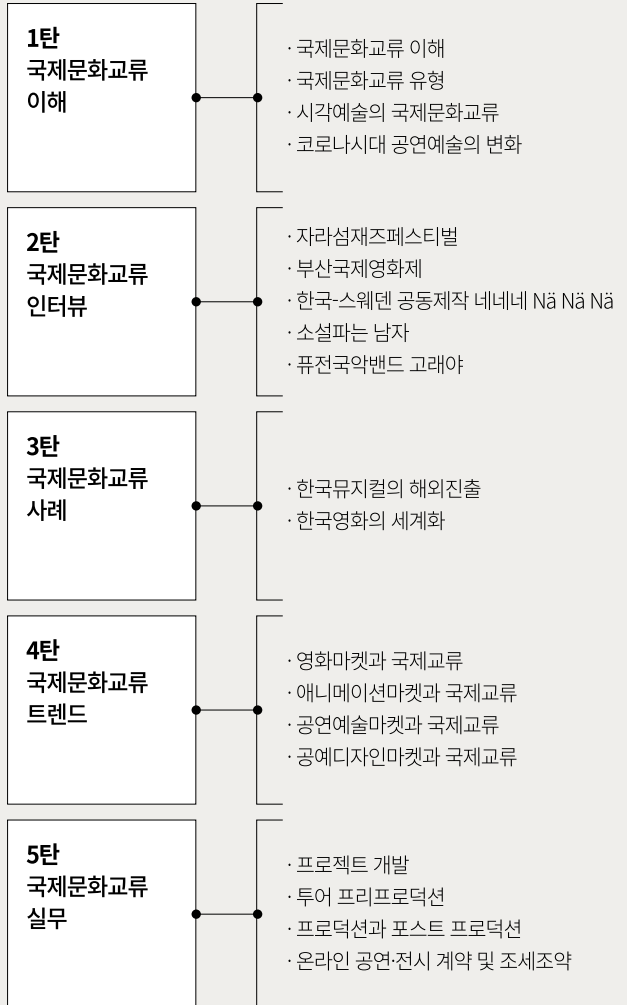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문화로'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출처\_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아카데미 구성 [출처\_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아카데미 구성



- 교육대상 \_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현장종사자 및 예비인력
- 교육비 \_ 무료
- 교육사이트 \_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문화로’  
(교류지식 ▶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www.kcultureroad.kr](http://www.kcultureroad.kr)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사업소개 ▶ 전문인력양성 ▶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www.kofice.or.kr](http://www.kofice.or.kr)

# NEXT 문화예술 디렉토리북

NEXT Arts and Culture Directory

「2020 NEXT 문화예술 디렉토리북」은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재외 한국 문화원 및 해외 주요 문화예술기관에 파견된 국제문화교류 기획자들의 현지 국가 문화예술 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문화예술 현장 종사자 또는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께 실질적인 국제문화교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 9개국 총 128개의 현지 문화예술 기관·단체, 공간, 축제·행사 프로그램 등의 정보 및 현황을 수록하였다. 문화예술 디렉토리북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홈페이지(사업소개 ▶ 전문인력양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가	수령기관 및 단체
대만	국가문화예술기금회, 국립가오슝아트센터 웨이우잉, 국립극장 양청원, 밤부커튼스튜디오, 오픈-컨템퍼러리아트센터 등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레인포레스트 월드 뮤직 페스티벌, 로스트젠스, 씨어터 쓰리식스티, 아이다 레드자 등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가무악단, 냐산콜렉티브, 빈컴컨템퍼러리아트센터, 크로싱오버페스티벌 등
홍콩 (중국특별행정구)	서구통문화지구,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타이관 센터, 파라사이트, 피엠 큐, 홍콩문화센터, 홍콩예술발전국 등
네덜란드	가우데아무스 뮤직위크, 반 아베미술관, 아이 영화 박물관, 암스테르담 예술펀드, 몬드리안 펀드, 페이지 낫 파운드 등
벨기에	겐트 시립현대미술관, 벌스카우버그, 디셈버 댄스, 쿤스텐페스티벌데자르 등
이탈리아	문화유산관광부, 국립21세기현대미술관, 로마에우로파 페스티벌, 밀라노 트리엔날레, 아치엔다 스페탈레 팔라엑스포 등
폴란드	그단스크 셰익스피어 극장, 라즈니아 현대예술센터, 루블린 문화센터, 문화과학궁전, 아담 미츠키에비츠 문화원 등
캐나다	국립극장, 문화인적자원위원회, 밴쿠버 포크 뮤직 페스티벌, 밴프센터, 슬래드 아일랜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 등



NEXT 문화예술 디렉토리북 표지 [출처\_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2020년 결과자료집 NEXT STORY**

발행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발행인 김용락(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  
발행일 2021년 2월  
기획총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교류기획부 교류기반팀  
편집책임 박미리  
디자인 정준모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039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A동 203호

Tel\_02-3153-1764, 1767

Fax\_02-3153-1787

[www.kofice.or.kr](http://www.kofice.or.kr)

※ 본 자료집은 저작자와 출처를 표기하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제작물은 네이버 나눔서체, 구글 본서체, 에스코어 드림체, 이사만루체 등이 사용되었습니다.